

여수 올 관광객 1000만명 돌파

가을 여행주간 다양한 행사
내달 빛노리야 축제 운영 등
'관광객 1300만명' 잇기 박차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급성장
한 여수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1000만명
을 돌파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올해 누적 관광객 수가 1000만명을 넘
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밝혔
다.
여수시는 올해 1000만명 돌파는 지난
해보다 15일정도 늦은 것이긴 하지만,
상반기 잦은 일기 불순과 하계 휴가철
장기간 지속한 폭염 등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관광버스를 이
용한 단체관광보다 승용차나 기차를 이
용하는 개별관광이 크게 늘어난 점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관광객 1300만명 시
대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이변달부터
수도권 수학여행단과 자유학기제 활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사
전답사 여행 등 공격적인 관광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 여행주간(21~11월6일)을
맞아 다양한 할인행사로 관광객을 유치
하는 한편 '여수관광 경품 이벤트'와 '시

민 감사 특별할인'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중이다.
또 여수밤바다와 연계한 빛축제인
'2016 여수 빛노리야'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관광
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을과 겨울 여행
지로써 여수가 가진 매력을 적극 홍보해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장례식장 내에 설치된 금호미술관에서 이상진 씨가 전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 위한 명함만 20여개 장례식장에 미술관 개관 문화사랑도

'목포 시민의 상' 이상진씨 화계

올해 목포 시민의 상(지역사회 봉사 부
문)을 수상한 이상진씨(73)의 숨은 이력이
알려지면서 화제다.
그는 별나고 독특한 사람이다. 그가 걸
어온 인생길이 그러하다. 그의 공식 직함
은 목포 금호장례식장 대표. 하지만 정치
인들 명함이 부럽지 않을 만큼 직함이 많
다. 한때 20개를 넘었다. 그만큼 의욕적
으로 사회활동을 펼쳤다. 70세가 넘는 고
령이지만 지금도 열정은 20대 못지않다.
그의 지역사회 봉사는 이 같은 열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나눔에도 헌신적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인간문화재'라고 부
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팔자에 재물이
없어 버는 쪽 쪽 나눔을 실천한다'는 그
의 신조이자 생활철학 덕분이다.
그는 "곳간은 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
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채워진다"고 했다.
그를 만나고 난 이후 봉사와 나눔을 실
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의 별나고 독특한 이력은 장례식 내
에 미술관을 개관한데서도 드러난다. '장
례식장에 미술관?'이라는 통념과 선입견
을 과감히 깨뜨리고 지난 5월 장례식장 2
층에 연중 상설 전시관인 금호미술관을
오픈했다.
전국 최초 장례식장 미술관인 셈이다.
현재 미술관에는 동·서양화 작품을 비롯
한 조각상, 도자기, 베틀 등 100여점이 전

시돼 있다.
이곳에 전시된 것은 맛보기에 불과하
다. 3층과 서재에 가면 벌어진 일이 단
출 모른다.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눈이 호사를 누린다. 심지어
복도에도 각종 수직품들이 사려하듯 이
런 형태로 전시돼 있다.
그는 "평소 모았던 예술작품들을 여러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슬픔에 빠진 유족이나 조문객들에게 잠
시라도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 미술관을
열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그의 수집 이력은 거의 병에 가깝다.
지난 2000년 때부터 닥치는 대로 모았다.
그의 수집품들은 동·서양화에서 도자
기, 조각상, 병풍, 족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르도 국경도 초월했다. 이렇
게 모인 것이 1000여 점에 넘는다.
그의 많고 많은 봉사활동 중 가장 돋보
이는 활동은 지난 2012년 지역동선터 후원
회를 전국 최초로 조직한 것이다. 후원회 발
족 당시 사재 2000만원을 털었으며, 지금도
매년 1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놓고 있다. 이
돈으로 장학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꿈은 내년에 장례식장 옆 부지에
100~120㎡ 규모의 건물을 지어 공식인
가 받은 미술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미술관을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
간으로 활용해 무료대관과 함께 소장품
들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전액 지역아
동센터 후원회 후원금으로 내놓을 생각
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호남선 애환 서린 동목포역 驛舍 복원을"

목포시의회 "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야"

목포역 개통 103년의 역사와 호남선의
애환이 서린 동목포역 역사(驛舍)를 재현
하자는 주장이 목포시의회로부터 제기되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시는 '철도폐선부지 웰빙 공원' 조
성과 관련한 지역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에 선정돼 인센티브로 1억3000만원을 교
부받았다.
목포시는 최근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1
억3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시의회
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수사례 견학
등 교육에 2000만원 ▲웰빙공원 연계사
업 발굴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컨
설팔 및 연구용역에 9000만원 ▲리플렛
과 동영상 제작 등 홍보에 2000만원을 집
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
회(위원장 조요한)는 교육 분야는 남독이
가지던 용역비 9000만원과 홍보비 2000

만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비 활용
지침에 따르면 사업 담당자의 역량교육
강화, 컨설팅 및 연구용역 수행, 기획·성
과관리를 위한 재원으로만 활용해야 한
다고 규정돼 있다. 게다가 시설비, 국외연
수, 현금 지급 등 포상 성격의 경비 지급
도 불가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요한 도시건설위원장은
"철도 폐선부지 내에 동목포역 역사가 있
었고, 목포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이라면
동목포역과 관련된 수많은 추억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아무런 의
미 없이 사용하기 보다는 동목포역 역사
복원 등 의미 있고 뜻 깊은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보비도 동목포역과 관련된 사
건이나 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



1970년대 동목포역. <독자 박종길씨 제공>

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나중에
동목포역 역사를 복원된 이후 이곳에 전
시한다면 색다른 볼거리이자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검
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호남선의 출발이자 마지막 종착역
인 목포역은 지난 1913년 5월 서·남해를

잇는 남도의 관문으로 문을 열었으며, 일
본강점기 수탈의 현장이라는 아픈 과거를
안은 역사의 장소로 남아있다. 또 동목포
역은 지난 1953년 8월 간이역으로 첫 영업
을 개시했으며 1970년 승차권 발매소로
지정됐다가 2003년 12월 3일 폐역 됐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유달산 서면 401가구 지붕·옥상 정비키로

해상케이블카 대비 경관 개선

목포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유달산 서
면의 경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다.
목포시는 3일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
통에 대비해 유달산 서쪽 면에 산재된 건
축물의 지붕과 옥상 등을 정비하는 경관
개선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상해부간은 리라 유치원~신안비치 호
텔 뒤 마을까지로 덕산마을 122가구, 봉
후마을 168가구, 대반마을 111가구 등 총
401가구가 정비 대상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사업비 1억4500만
원을 들여 건축물 옥상 방치물 정비, 건축

물 지붕 도색, 공기 철거 등의 사업을 펼
치기로 했다.
우선 언론매체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이와 병행해 건축
주나 세입자를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
위 계층 등 자체정비 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물 지붕 도색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대상 마을 내에 산재된
폐기(공기)는 철거를 독려하고 필요할 경
우 자체 사업을 통해 철거할 방침이다.
서태빈 목포시 건축행정과장은 "유달
산~고하도 간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
춰 유달산 서쪽 면에 산재된 건축물에 대



유달산 서면에 위치한 봉후마을 정경.

한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내년 10월까
지 모든 정비를 마쳐 깨끗하고 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 스토리북 발간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목원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
고, 관광자원화를 모색하기 위해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를 발간했다.
스토리 북은 목원동 출신 역사학자인
목포대 도시문화연구원 최성환 교수가 집
필했고, 목원동 스토리텔링, 유달산 이야
기, 목원동 즐기기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주요 공간별로 해당 지역과 관련된 흥
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돼 있고 직접 걸어

서 목원동의 문화유산, 골목길, 명사의
흔적, 맛집 등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상
세하게 기록했다. 특히 목포의 명산 유달
산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
도 수록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3일 "목원
동 관광루트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 지역민들의 애환의식 고취와 함
께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스토리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솔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움의 하얀 솔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피란 등해비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솔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실)

<p>※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시불 납부 시 약 6% 할인됩니다.</p> <p>※ 자세한 내용은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p>	<p>※ 자세한 내용은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p>
<p>EQUESTRIAN</p> <p>소노펠리체 송이클럽</p> <p>주말 20%, 주중 40%</p>	<p>YACHT</p> <p>거제 이리나 베이</p> <p>주말 회원대우, 주중 50%</p>
<p>GOLF</p> <p>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9~1 리프트 및 4가지 유희시설</p> <p>주말 50%, 주중 무료</p>	<p>SKI</p> <p>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p> <p>무료</p>
<p>OCEAN WORLD</p> <p>주황, 상수기 주중 50%</p> <p>비수기 주중 무료</p>	<p>RESORT</p> <p>객실 회원 요금의 50%</p>

전국 13개 지역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카이프/오션월드/컨트리클럽) - 소노펠리체 -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솔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 솔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광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거제 이리나 - 영림호텔 여수 - 영림호텔 고양

! 패밀리/스위트 납입계획! | 예금주 (주)대명레저산업 | 지정 계좌로 입금된 입금확인 유효합니다.
우리은행 1005 - 900 - 997807 국민은행 614701 - 04 - 002581 신한은행 295 - 05 - 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 양산지구 최고
영품입지, 영품조양!
-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 계약금 5%!
(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양산지구 · 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프**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내집마련

분양문의
(062) **351-4610**

모델하우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4-2 농성역 7번 출구 양산지구 양산리 1번

양산지구 유탑유블레스 스카이프 33층에서 바라본 실제조망도(투시)